

東北亞에 있어서 對馬島 領土 研究

金文吉*

(e-mail : mgkim@pufs.ac.kr)

目次

1. 서론
 2. 고지도를 통해본 대마도
 3. 古文書를 통해본 대마도
 4. 언어를 통해본 대마도
 5. 결론
-

1. 서론

21세기에 들어와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토영유권 문제이다. 영토문제는 지금까지는 조금씩 문제시 되어 왔지만 앞으로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원 문제로 대두되지만 또 한편으로 국위 문제로 대두되니까 영토문제는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영토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문제도 물려있고 일본과 중국 간에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독도문제는 우리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자주 거론함에 있어서 양국외교 관계 악화와 영토의 심각성을 가해야 하는 마당에 옛날부터 우리 영토의 속도(屬島)인 대마도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선국에 속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

본 논제에서 말해주듯이 옛 문헌과 옛 지도를 통해서 본 대마도는 우리영토(屬島)임을 고지도와 고문서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교수

2. 고지도를 통해본 대마도

1) 대마여지도(對馬與地圖)



다음 대마여지도(對馬與地圖)는 1756년 6월에 작성된 지도다. 이 지도는 일본지리학자로서 에도(江戸)시대 막부가 공인을 받아 완성한 것이다.

그때 일본막부는 서구 오란다(네덜란드)문화를 수용하고 외국 문물을 받아 들이기 위해 세계지도와 일본지도를 많이 그린 시대였다.

이 지도는 교토 기타노덴만쿠(北野天満宮)에 있는 것을 2003년에 출간한 「모리고안지도」(森幸安地圖)에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에 설명은 “釜示准朝鮮國地之例則府郷郡令之 470里”¹⁾

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대마도는

“대마도의 부,향,군 모든 범칙은 조선국 부산에 준한 것으로 본다. 거리는 470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청구도 동래부 기장현 지도

「청구도」 동래부 기장현 지도는 1834년에 작성된 지도이며 현재 고려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래부 기장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것이다.

특히 대마도를 동래부 기장현의 예속된 의미로 대마도를 설명해 놓고 있다.

표시된 설명문을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1) 辻垣晃一森洋久「森幸安の描いた地図」27-28 國際日本文化センター 2002



“本隸新羅水路四百七十里在東萊府之東南海中至實聖王7年 戊申倭置營於此島”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대마도는 신라 땅에 예속되어 있고 470리 거리에 실성왕 7년까지 동래부 동남해중에 있었다”²⁾ 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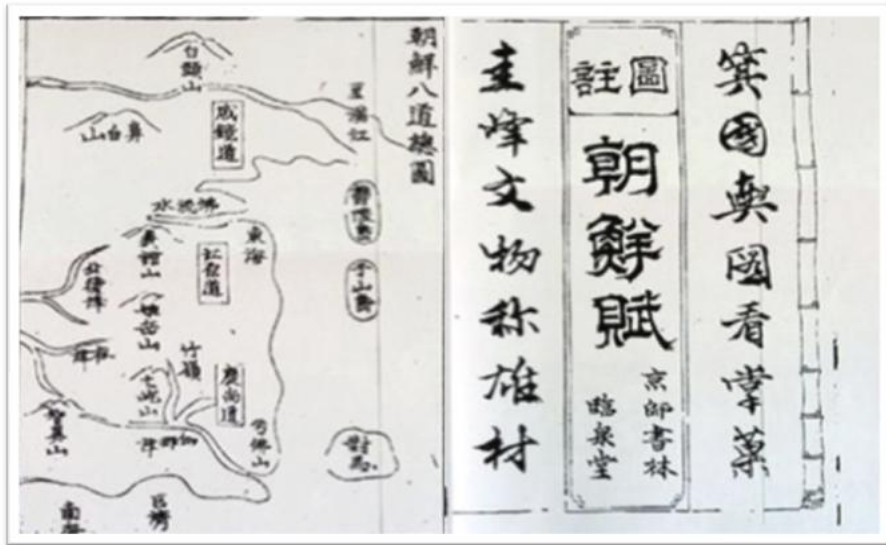
무신년에 왜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 무신년은 408년 신라 실성왕 7년이고 가락국은 坐知王때이다.

3) 중국인의 지도를 통해서 본 대마도

조선부(朝鮮賦)

「조선부」 서적은 1488년(성종19)년 중국사신 동월(董越)이 중국 황제의 명을 받고 조선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저술한 고서적이다. 이 서적에는 조선의 사회, 문화, 지리가 상세히 적혀 있으며 독도도 우리 영토로 그려져 있고 대마도(對馬島)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것이다.

2) 부산광역시 「부산고지도」, 1599 대훈기획 2008년 1월



(동월(董越)의 「조선 팔도 총도」)

당시 이 서적이 얼마나 평가가 좋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697년(숙종23)에 필사본을 만들었고 일본도 1717년에 필사본을 편찬하여 조선의 사회와 지리를 알게 되었다. 도쿠가와(徳川)막부는 백성들에게 조선 풍토를 가르칠 때 좋은 교재로 사용했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 중국은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이 책을 넣어 출간하였다. 사고전서란 유고, 경전, 역사 등 3458종 7만 9582권이나 수록한 유명한 역사서이다. 또한 사고전서관도 만들어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다.

일본에서 출간한 「조선부」에도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 영토로 되어 있다. 당시 중국인 들이나 일본인 모두가 독도, 대마도는 우리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사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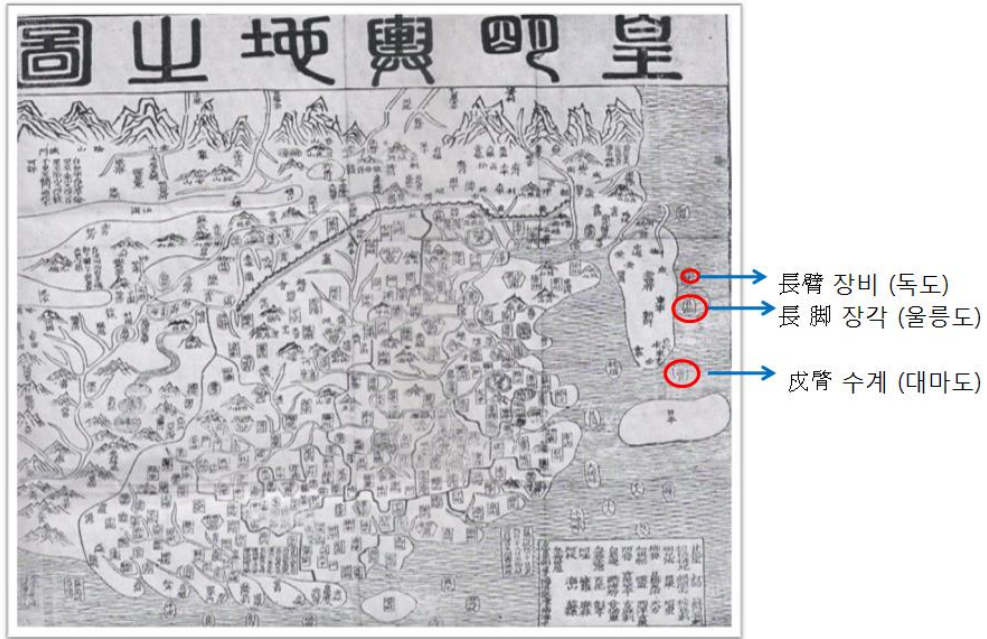
일본에서 가장 유적지가 많은 교토의 교토서립, 임천당에서 출간한 책이다.

교토는 우리나라에서 경주와 같은 지역으로 천년 도읍지였던 곳이다. 15세기 교토는 문화도시이기도 했으며 무사들의 교육도시라 할 수 있다.

이 서적의 3페이지에는 우리나라 「조선팔도 총도」라는 지도가 있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가 있으며 우산도가 있다. 울릉도 밑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 대마도도 우리 영토로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2008.3.16)³⁾

3) 「조선부 享保年(1717년) 교토서립 임천당 발간 p3 연합뉴스 2008년 3월 16일 보도

4) 황명여지지도(皇明與地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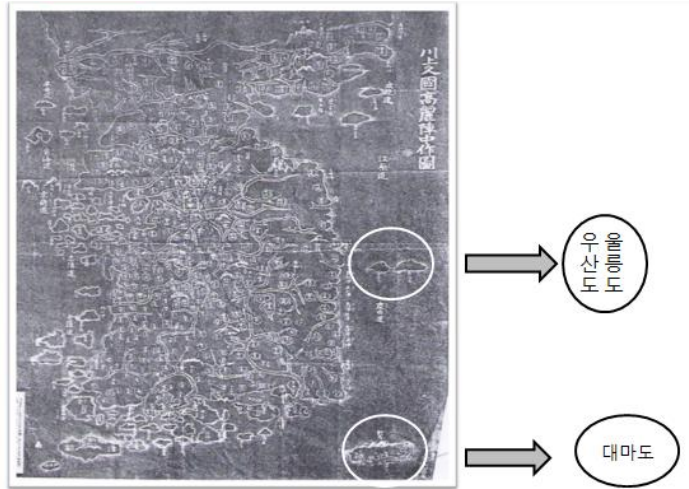
위 지도는 1536년 중국에서 제작한 것이다. 중국 연호로서는 가정(嘉靖)15년 병신년에 김계오(金谿吳)가 그린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를 장비(長臂)라 하고 있다. 장비는 긴 팔이라는 뜻이다. 울릉도는 장각(長脚)이라고 하는데 긴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6세기에 중국인들은 독도를 장비라 했고 울릉도는 장각이라고 했다. 장비와 장각은 육지에 붙어 있는 팔과 다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대마도는 우리 해협에 붙어 그려져 있는데 16세기 무렵 중국 사람은 이를 수계(戍啓)라고 했다. 수계의 의미는 견고하게 바라보고 지킨다는 뜻이다. 수비는 전쟁 시에 수루(망루)를 지어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도록 한다. 그리고 전투 길목을 지키는 병사를 수병이라 하고 작전사령부 정문을 지키는 자는 수위(戍衛)라고 했다.

대마도의 명칭은 중국 사람들은 수계라고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왜적이 쳐들어 올 때 대마도는 방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마도는 우리나라 지도 밑에 그려져 있다.

5) 임진왜란에 있어서 「일본군지도(日本軍地圖)」



1592년 4월13일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은 조선을 침략했다. 왜군은 신무기로 무장하고 치밀한 침략준비를 하여 제1진 고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를 선두로 제9진까지 침략하였다. 왜군은 총 20만의 병사를 이끌고 침략했다.

임진왜란 시 왜군 작전사령부의 역할을 한 카와가미 히사쿠니(川上久国)가 그린 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영토라 그려져 있다.

「임진역에 있어서 일본군지도」는 조선팔도의 각 지역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특히 조선의 관군기지(조선성),도로, 명승지 등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왜군은 3개 진영으로 한양수도를 진격했다. 제1진은 동래성을 시작으로 해서 김해, 삼랑진, 대구로 진격하고 제2진은 기장, 울산, 경주, 영천, 의성으로 진격했다. 그리고 제3진은 김해, 진해, 순천으로 진격했다. 부산포에 침략한 왜군은 치밀한 작전으로 5월7일 한양수도를 점령했다.

이때 그린 지도를 보면 대마도가 조선 작전도에 들어 있었다. 조선에 들어오기 전 전쟁의 출발지 나고야성(名護屋城)에서 대마도 도주인 종씨(宗氏)께 전쟁의 필요성과 전쟁에 가담해야 하는 전쟁 교섭담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독도, 울릉도를 우산도(于山島)로 표기한 것과 대마도, 독도, 울릉도를 작전 계획지도에 포함한 것을 볼 때 대마도는 임진왜란 당시 분명한 조선의 영토임을 알 수 있다.⁴⁾

4) 카와가미 히사쿠니 「日本国地圖」, 『加藤清正 가문서』 本妙寺 소장

6) 「조선팔도 지도(朝鮮八道之圖)」



조선팔도지도

이 지도는 18세기의 일본 지리학자 하야시시헤이(林子平)가 그린 지도이다. 지도의 크기는 길이가 80Cm이고 폭은 1m의 소형지도이다. 육지는 노란색으로 조선팔도 명칭은 흑(黑)로 기록하고 동쪽의 동은 조선어로 ‘둥’으로 하고 서쪽의 서는 ‘세’로 표기하고 남쪽의 남은 ‘담’으로 표시하고 북쪽의 북을 ‘복’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도를 그리다가 한글을 모르니 발음 나는 대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용복이가 2차 일본에 들어 갈 때 「조선팔도지도」를 가지고 일본인에게 보여주면서 독도는 울릉도 부속섬이고 조

선 강원도에 속했다고 항변한 일이 있다. 그 때 받은 지도를 보고 일본사람이 오자로 기록한 것이라 생각된다.

지도 밑에 각 도와 거리를 표시해 놓고 있다. 특이한 것은 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우산도를 같이 그린 것이다. 그래서 우산국이라 했다. 우산국 옆에는 한자로 궁송(弓嵩)이라 하고 가나명으로 ‘이소다케’라 말하고 있다.

이소다케는 돌산이란 뜻이다. 궁송의 의미도 돌로 쌓인 섬이란 뜻이다. 독도는 원래 돌섬이라고 하는 것이 통명이었다. 우산도에서 나온 말이다.

작성연대는 천명(天明)5년 가을이라고 되어 있고 지도를 출판한 곳은 교토에 있는 하시무로마찌(橋室町) 3정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 하는 것은 경남 부산지역에 “쓰시마(對馬)”는 조선의 영토라고 되어 있다.

일본어로 “쓰시마 오모찌시(對馬 持ぢシ)” 라고 되어 있다.

“쓰시마오모찌”는 “쓰시마는 조선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쓰시마는 부산이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쓰시마는 옛날부터 조선이 통치했다.⁵⁾

5) 「조선팔도지도」 원본은 부산 범연원이 소장하고 있고 사본은 필자가 소유하고 있다.

3. 古文書を 통해 본 대마도

1) 고려의 곡물 원조를 받은 대마도

대마도는 악산으로 되어 있는 섬이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다.

고려 공민왕17년(1368) 대마도주가 도민들이 굶어 죽게 되자 백미를 청구했다. 그때 강구사(講究使) 이하생을 대마도로 보낼 때 백미 1,000석을 주었다.

고려시대까지는 부산은(富山浦) ‘부자도시’라 대마도 주민들이 자주 들어 와서 곡물을 훔쳐가기도 했다.⁶⁾

대마도 주민들이 조선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형편이라 조정에 자주 원조를 청해야 했다.

조정에서 충신들이 대마도 주민들의 원조사업으로 불만을 품고 있을 때 태종(太宗)임금께서도

對馬爲，隸於 慶尙道之鷄林， 本是我國之地， 載在文籍， 昭然可考⁷⁾

라 했다.

다시 말해서 「대마도는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하고 본래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에 실려 있음을 분명히 상고해야 한다」⁸⁾ 라고 설명하면서 대마도 도민들이 조선인이고 조선 땅이라는 것을 중신들과 백성들에게 밝힌 바 있다.

1719년 (통신사 제9회) 조선통신사 일행이 부산을 거쳐 대마도에 들어가서 접대를 받을 때 대마도 도주와 통신사 단장인 정사(正使) 홍치중(洪致中)과 좌석 배치로 다툼이 있었다.

대마도 도주의 비서관이 도주의 자리가 상석이라야 한다고 주장할 때 조선통신사 일행 제술관(製述官)인 신유한(申維翰)은 조선통신사 단장이 상석에 앉아야 한다며 마찰이 있었고, 도주가 연회장에 늦게 들어올 때 대마도관인들은 통신사 일행도 모두 일어나서 도주를 맞이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통신사를 접대할 때마다 다툼이 있었다.

그때 제술관 신유한은

「그러니까 이 섬(대마도)은 조선에 속한 주(州)가 아니었던가」

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틀림없이 “이 섬(對馬島)은 조선의 주현(州縣)이 아닌가”

라고 강하게 주장한 적이 있었고 도주의 좌석 배치라든가 도주가 들어올 때 좌석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고쳤다고 했다.⁹⁾

6) 연합뉴스 2006년 4월 14일 보도

7) 김성일 『해차록(海槎錄)』 3권 「許書狀官答」

8)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 『衙道をゆく』 1권 朝日文庫 1995 p.149

2) 김성일(金誠一)의 보고서

김성일은 조정에서 중직을 맡은 자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본에 왕래하면서 사절단의 단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1590년(선조23년) 무로마찌 막부(室町幕府)는 조선인 학자를 초청하여 조선의 문물을 전수 받았는데 그때 일행으로 김성일이 초청되어 일본에 갔다.

그는 일본에서 돌아와 보고한 「해차록(海槎錄)」에 보면,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인가 물을 때 대대로 우리 조정의 은혜를 받아 조선의 동쪽 울타리를 이루고 있으니 의리로 말하면 군신지간이요. 땅으로 말하면 조선에 부속된 작은 섬이다.”

라고 했다.

3) 교지(教旨)의 내용 분석

대마도가 우리 부속 섬이라는 증거는 교지(教旨)를 보고 알 수 있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내린 관직이다. 대마도는 우리 부속영토니까 대마도에 교지를 수 십 차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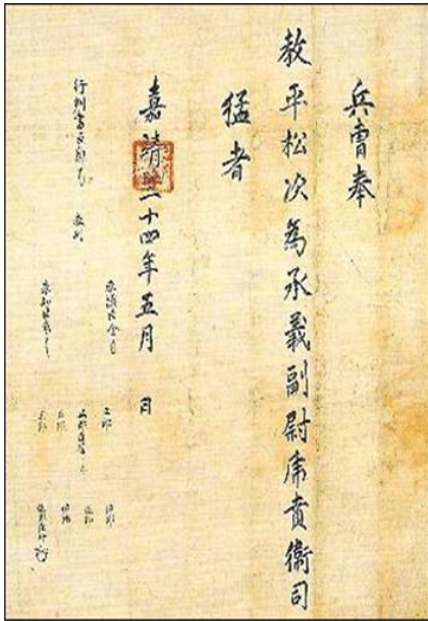
지금도 대마도의 일본 사료관에 40여 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수집된 관직 임명장은 대마도 무사들에게 내린 교지이다. 1555년 5월에 내린 무사 임명장은 타이라 마쓰지(平松次)에게 내린 것이다. 내용을 번역해 보면,

“平松次武士께 승의부위(昇義副尉) 호분위사맹(虎賁衛司猛)을 수여한다.”

는 내용이다. 승의부위는 무사란 뜻이고 호분위사맹은 무사중에서 최고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교지의 크기는 74cm×94cm의 조선 임금의 옥쇄가 찍혀있다.

다음의 교지도 1569년 8월에 내린 것인데 대마도 무사 노부도끼라(信時羅)에게 무사의 관직을 수여한다고 기록 되어 있다.

9) 시마요다료(司馬遼太郎) 「衛道をゆく」 권, 1995 p.149



이상과 같이 두 교지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직(受職)임명이다. 대마도는 기록상으로 우리의 영토이며 조선의 부속 섬인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다.¹⁰⁾

4. 언어를 통해본 대마도

대마도 원주민 언어는 한글

대마도 원주민들이 한글을 사용한 동기에 대해 옛날 아마노 오모이카네신(天思兼神)이 대마도 원주민 우라베 아히루(卜部阿比留)씨족에게 전해져 사용되었으며 아히루씨 족은 대마도 원주민으로 지금도 후손들이 대마도에 살고 있다.

대마도 원주민들이 사용한 한글은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 한 글자를 이루고 표기는 한글이지만 뜻은 일본어이다. 또 어떻게 해서 글이 이루어졌는지 원리도 기록되어 있으며, 한글을 아히루(阿比留) 글이라 하고 신사에 걸려 있으며, 아히루의 원 직업은 신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따라서 “대마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통치권을 우리 조정에서 가진 것으로 문

10) 「경남일보」 2009년 11월 11일 보도

헌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대마도의 원래 모국어는 한글이었다.

“일본인들은 대마도 원주민의 언어를 고대시대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난 이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후 사용 표기는 한글 뜻은 일본어”

← 사진설명=1876년 일본에서 발견된 ‘일문전’이란 문헌에 한글과 유사한 문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11)

1) 우라베 아히루(卜部阿比留)문자

○ 一 本 云 右 日 文 者 日 神 勅 思 兼 命 所 撰 也 筆 法 秘 傳 者 筆 意 把 筆 運 筆 全 假 離 合 廣 文 縮 文 以 上 七 條 卜 部 家 口 傳 有 之 大 凡 既 行 不 可 皇 和 神 代 字 集 不 載 せ る 中 此 一 枚 と 森 川 士 義 少 集 せ る 中 の 一 枚 と を 控 合 せ 見 て 載 せ

○ 神 字 日 文 傳 上

○ 二 本 云

대마도 우라베 씨족들이 우리 한글을 사용하면서 「아히루」문자를 전했다고 한다. (히라다 아쓰다네 平田篤胤 『日文伝』참조) 아히루 문자를 처음 연구한 국학자는 히라다아쓰다네이다. 히라다 국학사상이 명치유신으로 계승해 갔지만 아히루 문자는 조선의 한글이고 조선의 부속 섬인 대마도 도민들이 사용한 글이다. 국학자 히라다 아쓰다네는 불교에서 나온 한자 일본어를 버리고 신도사상을 일으킬 조짐으로 배불운동을 일으킨 자이다.¹²⁾

2) 명치유신의 아히루 문자

명치유신은 종교적으로 불 때 신도사상의 부활이고 경제적으로는 부르조아 자본주의 운동이라고 한다.

언어적으로 불 때 아히루 문자, 문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3) 오늘날 일본 아히루 문자

일본 신사가 70만개의 신사가 있다. 신사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천황을 섬기는 신궁(神宮)과 씨족을 섬기는 우지가미 신사(氏神社) 일·러전쟁으로부터 태평양 전쟁시까지 전쟁에 가서 죽은 전몰장병의 혼을 섬기는 신사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가 있다.

대마도 아히루 문자를 사용한 씨족의 신사가이다. 일본열도에 약 이천여 개나 된다. 아히루 문자인 우리글을 섬기는 씨족신사이다.

11) 줄저 일본고대문자연구 -신대문자는 우리 한글이다-, 형설출판사 1992 p.12

12) 平田篤胤 『神字日文伝』 上卷 p.12



(아히루 문자로 된 「고사기」)

그 중 한 신사를 소개하자면 오카야마(岡山県) 구라시키(倉敷)에 있는 나가오신사(長尾神社)이다. 이 신사는 원래 도래인(渡来人)의 신사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대마도 사람이라 생각된다. 이 신사 신문(神門)에 한글인 아히루 문자가 있다. 표기는 한글이고 뜻은 일본어이다.



(한글인 대마도 아히루 문자)

“가무나가라 (신이 걸어온 길)”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³⁾

4) 가락국편년기(駕洛国編年記)



앞에서 말했듯이 대마도의 원주민은 백제인 아지기의 후손인 아히루씨족이 거주할 때 왜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락국편년기를 보면

“日始置營于对馬島”

라 하니 가락국 6대 좌지왕 2년 신라국 실성왕년 408년에 일본인들이 대마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가락국 편년기 8장)

13) 출처 神代文字와 長尾神社, 『外大論叢』 12집 부산외대 1994 p.213

가락국편년기는 일제통치하 다이쇼(大正) 13년에 편찬된 문헌이다.

다이쇼기는 일제강점기 황민화(皇民化)운동이 일어나던 해이다.

일제 총독부는 황국시민에 위배되는 문헌은 모두 불을 사르고 언론 출판을 탄압하던 때이다. 대마도는 가락국 신라국 조선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락국편년기는 탄압을 받지 않고 출판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5. 결 론

대마도는 1245년 경까지 토착인들은 조선 사람이었다. 백제 아직기(阿直欺)의 후손 아히루(阿比留)족으로 1245년 종씨(宗氏)의 세력에 의하여 아히루족이 멸망당했다. (한일관계사연구회 「독도와 대마도」 p.183 참조)

망하기 전 아히루 족은 한자의 이두 음으로 우리글을 사용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는 종씨들이 우리글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 가지 문제는 세종이전에 글이 있었다. 단군 때 사용했던 글로 세종 때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단군 때 글이 있었다면 당연히 대마도에도 단군의 글, 가림토 문자를 썼다고 볼 수 있다.

한글의 창제에 대하여 언제부터인가 학계의 논란이 심하다. 대마도는 13세기까지 백제 계인 아히루 족이 살았다는 것은 틀림없다. 종씨가 지배한 후에도 수직(受直)통치를 했다는 것은 속도(屬島)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마도가 우리영토라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민족학적으로 볼 때 대마도의 주민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7일간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줄을 치는 풍속이라든가 100일이 되면 돌잔치 하는 풍속도 우리나라 풍습과 같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풍속이 같다는 것은 한민족의 한 영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마도의 토착신앙은 단군종교에서 나온 것도 많다.

앞으로 일본이 「죽도의 날」을 이용하여 민족정신을 함양할 때 우리나라도 「대마도의 날」을 정하여 민족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14) 金雲培 「駕洛國編年記」 大東印刷所 大正13年 p.4

【參考文獻】

- 金文吉 『한일관계사』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金文吉 『칭산하지 못한 한일관계사』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織田武雄 『地図の歴史』 講談社 1973
大林太良 『世界の神話』 日本放送出版社 1976
海野一隆他編 『日本古地図大成』 講談社 1975
松本賢一 『南蛮紅毛日本地図集成』 岩波書店 1996
応地利用 『絵地図の世界像』 岩波親書 1996
김화홍 『대마도는 한국땅』 지와사랑 2005
서울대학교규장각 「규장각소장 조선전도」 도서출판 민족문화사 2006
辻垣異一, 森洋久 共著 「森幸安の描いた地図」 국제일본문화센터 2003

要 旨

21世紀に入ってきて国際社会で領土領有権をめぐる様々な問題が起っている。このような領土問題は資源問題のみならず国威問題としても台頭するので領土問題は一日はやく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問題は韓日間の問題のみならず韓国と中国問題も絡み合っているため日本と中国間にもたいふ深刻である。そして日本とロシア問題も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もある。独島問題は私たちが領有権を持っているが日本がしばしばこれを取り上げ論じることによって両国外交関係を悪化させたり国際舞台で韓日両国に領土を困んだ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を戦略的に利用する恐れがある。反面昔から私たちの領土の属島である对馬も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性があり、朝鮮国に属したという歴史的な事実を知ろうとしてもすることだ。本論文では对馬が私たちの属島であることを古地図と古文書を通じて明らかにするのが主目的だ。

对馬は1245年ごろまで土着人は朝鮮の人である。百済の阿直欺の子孫阿比留族で1245年、宗氏の勢力によって比留族が滅亡された。(韓日関係史研究会、独島と对馬 p.183 参照)滅びる前アヒル族は漢字の吏読(イドゥ)音で韓国の文字を使ったし世宗大王(セジョンデワン)がハングルを創り出した後には同姓らが韓国の文字を使ったと考えられる。一つ問題は檀君の時使った文が後日世宗(セジョン) 焚いて訓民正音を作ったという説がある。檀君の時ハングルがあったとすればかつて对馬にもハングルを使ったと見られる。しかし残念なことにハングルの創製が何時からかに対して学界の論議が激しい。对馬は13世紀まで百済系のアヒルジョクが生きた。そして同姓が支配した後、受直統治は属島である。日本は現在独島を自分たちの領土と叫んで竹島の日を制定して領土紛争を起しているため、私たちがこれに対し早く对馬の日を制定するのは当然のことといえよう。

キーワード：对馬、古地図、古文書、アヒル属、ハングル、受直統治、領土問題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0. 3. 13
2차 심사 : 2010. 3. 27